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3.(월) 조간 < 2026. 11. 23.(월) 09:00 >

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
「양극화 대응 TF」 산업·기업반 1차 회의 개최

- 산업·기업간 격차 완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및 정책과제 본격 발굴
- 국가 대규모 프로젝트 내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고, 수출 1조 달러 성장의 결실을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고루 확산 추진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소영, 이하 중기부)와 **산업통상부**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11월 23일(월) **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, 박동일 산업부 차관 공동 주재**하에 관계부처,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**「양극화 대응 TF」 산업·기업 격차완화반 1차 회의**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1일(수)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**「양극화 대응 추진방향」**과 11월 12일(목) 개최한 **「양극화 대응 TF」 총괄반** 제1차 회의의 후속 회의로, **5대 핵심 분야*** 중 **산업·기업 분야의 격차 완화**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.

* ①노동시장, ②산업·기업, ③지역, ④세대, ⑤사회 격차 완화

최근 **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** 등에 힘입어 **거시경제 지표**는 개선되고 있으나, 이러한 성과가 산업·기업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. 이에 중기부와 산업부는 **산업·기업간 격차**를 **완화**하고 대기업·중소기업 **모두의 성장**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발굴해 나간다. 특히, **국가 대규모 프로젝트 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**, 산업 전반의 대·중소기업 **상생협력 강화 등** 다양한 과제를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다.

앞으로 **산업·기업 격차완화반**은 **매주 정례회의**를 통해 각 부처, 국책연구기관,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**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**를 구체화해 나간다.

과제의 추진 시기와 성격에 따라 ❶즉시 추진, ❷내년 중 제도개선 및 추진, ❸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 등으로 체계화하고, 향후 총괄반 보고 및 논의를 거쳐 부처 간 합의된 **핵심과제는** 「2027년 경제성장전략」에 반영할 계획이다.

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"산업·기업 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**성장산업의 성과**가 일부 대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**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**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"고 강조하며, "관계부처 및 국책연구기관,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와 여건에 맞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박동일 산업부 차관은 "최근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1조불을 돌파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."고 언급하며, "성장의 결실이 산업생태계 전반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걸림돌을 해소해 나가겠다."고 밝혔다.

중기부	기획조정실 기획총괄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형철	(044-204-7420)
		담당자	사무관	전진섭	(044-204-7324)
			사무관	장희수	(044-204-7336)
			주무관	임혜진	(044-204-7335)
산업부	산업정책실 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우성훈	(044-200-0000)
		담당자	사무관	박찬서	(044-200-000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